

산문박의 禪

禪관화가 이철수 씨

실상사, 다 왔다!
이 칸판 없으면,
세상에 없는 것인가?
실상사!

이다. 그렇게 민중미술작가로 알려졌던 이씨가 온갖 갈등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선화(禪畫)에 매료돼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목판에 새겨낼 수 있게 된 배경에는 80년대 후반에 맺었던 불교와의 인연이 절대적인 자리를 굳히고 있다. "87년도쯤 되었을 겁니다. 시대가 입

**"제 삶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그림의 여백을 충분히 살립니다
여백을 통해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를 반조해 봅니다"**

면 없이 있을 수 없는 법이거든요." 이씨가 말하는 그 거리는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결국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불교적 소재 하나하나들은 작가의 마음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흐름에 적극 조응하는 것들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셈이었다. 작품에 임하는 마음도리를 다져먹기 까지 불교 못지 않게 그에게 있어 영향을 끼쳤던 것은 자연의 향취요, 순리였다. 이철수씨는 충북 제천군 백운면 평동마을, 천등산 아래에서 푸성귀들을

현장이다. "저는 제 삶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그림의 여백을 충분히 살립니다. 여백을 통해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를 반조해 보죠." 내년 판화제 작품준비 관화를 찍어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 형태가 없는 그 부분을 새기면서 그는 많은 피안을 쏟았다고 한다. 그 가 빠져든 '목판삼매'의 본질은 다름아닌 '여백삼매'였던 것이다. 이씨는 내년

"相을 새기면서 아상을 버리죠"

목판 삼매 빠져들수록 '無相의 도리' 마음에 각인

화폭에 담는 방법을 버릴 수 없다. 선(禪)관화가 이철수씨(41)는 나무에 칼로 그리는 상을 새기면서 도대체 어떤 상 아닌 상을 노려보고 있는 것일까? 3년간에 선보인 1백여점의 작품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곳의 화랑에서 10월 1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동시에 선보이고 있는 선(禪)관화가 이철수씨의 그림을 주시하고 싶다면 영락없이 의문을 품게 된다. 그 의문은 과연 이 작가가 표현한 것은 유상(有相)인가 무상(無相)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것에서 출발된다.

이철수씨의 그림과 글은 이런 휴과 자연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휴향까지 량 우리를 가슴에 산뜻하게 묻어내는 것 일게다. 이씨의 글에서는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산에서 쇠여울 삼는 질박하고 구수한 밤새가 난다. 단순하고 질박한 그의 관화에 결들인 간결한 화제는 그림과 어울려 선미(禪味)를 풍겨준다. 그의 작품에 있어 풍기는 여백에서 절정을 이룬다. 여백은 뜬내지 않는 멋스러움을 두드러지게 하지만 알고보면 그 여백도 작가에게는 치열한 구도의

일구며 산다. "휴를 가까이 하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시골생활은 저로하여금 때묻지 않고 낱이 새롭게 태어날 수도, 창조 의 삶을 살 수도 있게 합니다. 언젠가 발달재를 찾아 오신 법정스님도 '날마다 새날이라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하 셧지요.' 이철수씨의 그림과 글은 이런 휴과 자연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휴향까지 량 우리를 가슴에 산뜻하게 묻어내는 것 일게다. 이씨의 글에서는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산에서 쇠여울 삼는 질박하고 구수한 밤새가 난다. 단순하고 질박한 그의 관화에 결들인 간결한 화제는 그림과 어울려 선미(禪味)를 풍겨준다. 그의 작품에 있어 풍기는 여백에서 절정을 이룬다. 여백은 뜬내지 않는 멋스러움을 두드러지게 하지만 알고보면 그 여백도 작가에게는 치열한 구도의

열린 관화제에 출품할 작품준비와 함께 기한도 없이 시작한 사할시리즈를 1~2 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열주일이 풀렸나 다녀간 다 해라 먹던 차는 다 식었을 게다 새로 끓이고 바람부는 날 하루 그 곁에 다녀가마 몸 조심들하고 기다릴 것은 없다 <'화담' 철수 92> 한 생애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과 타인에게 남길 말은 어떤 것이 겠는가. 음미할수록 가슴이 저리는 여 운이다. '나 다녀간 다 해라, 몸 조심들' 도필선 기사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세 상사를 다 알 수는 없다. 한계가 있으므로 전공부문이 있기 마련이다. 불교 전반을 다 알 면 삼장법사라는 대칭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각자의 수평과 교학에 대하여 이름이 지어지게 된다. 고승전의 편찬을 눈여겨 살펴 보아야 그 시대 스님들의 전문성을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의 제자도 십대제자가 있음은 모두가 여기에 연유한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세계는 불가사의한 것이라 일체지를 깨치고 일체사를 성취하였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49

삼명(三命)

첫째로 정생을 아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사람을 막론하고 금생의 일도 불문하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 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부모에 의하여 태어났 으리라고 막연히 유추할 뿐이다. 사람이 과거의 자신을 안다면 무섭기도 하지만 지금 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의 나는 무엇이었고 어떤 일을 하였고 왜 모든 것이 성취되지 못하였는가를 명명백백하게 환히 꿰어볼 수 있다면 지금의 자신을 이끌어 살아가는데 허물이 없게 할

숙명·생사·번뇌를 아는 지혜

이렇게 된 자리이므로 깨침이라 하고 그 깨침은 삼명(三命)으로 표현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연기법이나 사제법의 설명이 아니라 세가지 밝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세계에 빠져가야 한다고 부촉하신 것이다. "다 배운 이의 세가지 밝음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숙명을 아는 지혜의 신통(宿命智通), 생사를 아는 지혜의 신통(生死智通), 번뇌가 다한 지혜의 신통(漏盡智通)이다. 어떤 것이 다 배운 이의 숙명을 아는 지혜의 신통인가. 성인의 제자는 갖가지 전생 일을 안다. 끝 한 생에서 백천 만 억 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는 이룩되고 무너진 겁수(劫數)와, 자기와 중생들이 지낸 과거에 어떤 이름, 어떤 생(生), 어떤 성을 가진 것과 어떤 음식을 먹은 것과 어떤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은 것, 얼마만한 수명으로 오래 머무른 것과 어떤 신분을 받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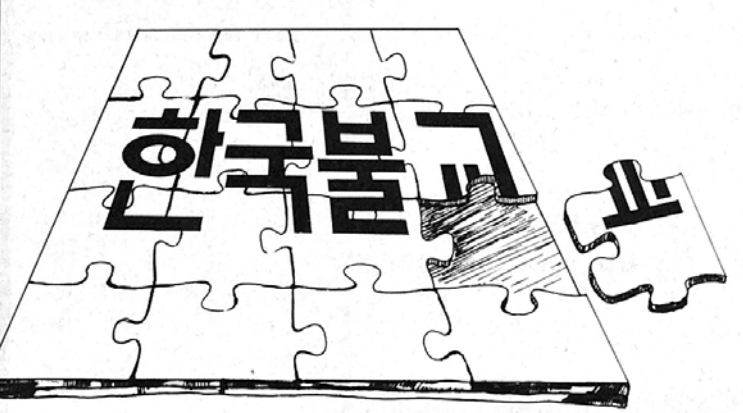
찾된 법의 인연을 받았으므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같이 나쁜 곳에 난다고 한다. 또 이 중생은 몸과 입과 뜻으로 착한 행을 행하고 성인을 비방하지 않으며, 바른 견해를 성취하였으므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이나 인간의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헤아릴 수 없게 하찮게 마음 놓고 사는 것이다. 숙명을 통달하는 것은 현존의 좌표가 될 것이다. 둘째로 생사의 모습을 환히 안다는 것은 육도윤회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윤회가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이 일기 하지만 생사의 본상을 알게되면 이러한 의심은 저절로 소멸될 것이다. 분명히 생사는 이어지고 소멸되고 또 생기는 연기의 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셋째, 번뇌가 다하는 지혜를 증득하는 것은 최상의 단계이다. 살고 있는 중생은 모두가 삶의 번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삶의 번뇌가 욕망이다. 생존욕,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등으로 분화되지만 제일 근본은 식과 색의 번뇌이다. 생명의 욕망 행복의 욕망, 이것이 번뇌욕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근본욕망이 제거된다면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부처님께서 삼명의 깨침을 제자들에게 세삼스럽게 설법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깨침은 바로 삼명성취에 있기에 가만가만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창립, 새 불교운동 전국 승가회

창립법회
불기 2539년 12월 1일(금) 오후 3시
조계사 문화회관 1층

새로운 승가상 확립으로 불교 중흥의 전기를 만들겠습니다.



- 거리, 일터, 산사! 이 모두가 수행 도량임을 선언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승가이기를 발원합니다.
- 오늘날 사회의 혼탁은 바로 종교인 모두가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총체적 전환 국면에서 새롭게 거듭나라는 사부대중의 여망을 받들어 새 불교운동 전국 승가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여법한 승가상, 수행하는 승가상 확립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가칭)
전화 720-7097 / 팩스 723-9120